

젊고 세련된 준대형 세단...운전자 마음 사로잡다

기아 준대형 세단 K8 타보니

길어지고 낮아진 차체 혁신적 디자인... '1등석 공항 라운지' 같은 실내 '주행모드' 따라 변하는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골반 등 스트레칭 효과 흔들림 없는 코너링...엡 메리디안 스피커 탑재 주행중에도 깨끗한 음질

기아가 새 엠블럼을 첫 적용해 출시한 준대형 세단 'K8'은 출시 전부터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은 모델이다. 사전계약 첫날 1만8015대를 기록해 기아 세단 중 최다 첫날 계약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2.5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K8(시그니처)을 오토랜드 광주(기아 광주공장)에서 화순 도곡면 일대까지 약 50km 구간을 직접 운행해봤다.

주차장에서 K8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 출시 전부터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새 엠블럼이 적용된 첫 양산모델답게 K7의 3세대 풀체인지 모델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혁신적인 디자인이 적용됐다. 기존 준대형 세단과 달리 중후함은 덜했지만 확실히 더 젊어졌고 세련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범퍼와의 경계가 모호한 범퍼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고 스타 클라우드 라이팅이나 C필러 등에 곳곳에 적용된 다이아몬드 모양의 디자인도 과하지 않았다.

특히 K8의 전장(차체 길이)은 5015mm로 그랜저와 체네시스 G80보다 각각 25mm, 20mm가 더 길다. 또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축거(휠베이스)는 2895mm로 기존 준대형 세단보다 길어졌다. 덕분에 운전석에 앉으면 넉넉한 실내공간을 체험할 수 있었다.

또 뒷좌석 레그룸 역시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등 확실하게 여유가 있었다.

반면 전고는 기존 K7 모델에 비해 15mm 낮아진 1455mm로 차량 천장과 머리 사이의 헤드룸 공간은 비교적 좁게 느껴졌다. 하지만 전고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더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을 더해줬다.

실내 공간은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1등석 공항 라운지에 앉아있는 듯했다.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부드럽게 이어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12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이 뛰어났다.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를 갖춘 1열과 다기능 센터 암스트 등 편의성도 돋보였다.

본격적인 운행에 앞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라디오 채널을 찾아 왔다. 기아에서 처음 탑재한 메리디안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체험하기 위해서다. 현대모비스와 영국 대표 오디오 시스템 브랜드 메리디안이 2년간 공동 개발한 시스템으로, K8에는 천연 원목 재질의 진동판을 사용한 14개의 나택 스피커가 탑재됐다.

주행 중에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깨끗하고 선명했다. 주행여건에 따라 자칫 소리가 묻힐 수 있음에도, 고급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듯 최고의



음질을 자랑했다.

차량을 몰고 제2순환도로에 접어들면서 주행모드를 '스포츠'로 전환하고 속도를 시속 90km/h까지 끌어올려봤다. 주행모드를 바꾸는 순간 운전석 시트가 몸을 조이듯 잡아줬다.

운전석에는 7개 공기주머니를 활용해 최적의 착좌감을 제공하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됐다고 기아 관계자는 전했다. 에르고 모션 시트는 골반과 허리, 전신 등을 선택해 스트레칭 효과를 줘 운전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도 한다.

무엇보다 신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행감은 만족스러웠다. 서행하는 구간이나 속도를 높이는 구간에서도 소음과 떨림 등 증상 없이 안정적인 주행능력을 보여줬다. 커브를 도는 구간에서도 흔들림이 없었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핸들은 주행 만족감을 높였다.

특히 K8은 고속주행에서 그 매력을 더했다. 앞서 설명한 에르고 모션 시트가 몸을 잡아줘 고속주행시 확실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투 챔버 토크 컨버터'가 적용돼 변속시 충격감이 덜했고, 엔진과 변속기 직결감은 강화돼 한층 높은 수준의 주행감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기아가 출시한 준대형 세단 K8 전면부 모습. 차량 전면에는 범퍼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됐다.

동승한 기아 관계자는 "트렁크 상단부 패키지 언더패드와 도어 접합부 3중 실링을 새롭게 추가하고 실내 흡차음재 밀도를 높여 진동과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K8의 판매가격은 2.5 가솔린의 경우 ▲노블레스 라이트 3279만원 ▲노블레스 3510만원 ▲

시그니처 3868만원이다. 3.5 가솔린 모델은 ▲노블레스 라이트 3618만원 ▲노블레스 3848만원 ▲시그니처 4177만원 ▲플래티넘 4526만원으로, 3.5 LPI는 ▲프레스티지 3220만원 ▲노블레스 3659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5년 연속 'TEAM HMC' 레이싱팀 후원

현대자동차가 5년 연속 'TEAM HMC' (Hyundai Motor Club) 레이싱팀 후원을 결정하고 국내 모터스포츠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는 지난 9일 '현대차-TEAM HMC 후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올해 창단 5주년을 맞이한 'TEAM HMC'는 현대차 브랜드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호회 '현대모터클럽' 회원이 모여 만든 아마추어

레이싱팀이다.

이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모터스포츠 대회인 '2021 현대 N 페스티벌'에 출전한다. 2021 현대 N 페스티벌은 11월14일까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및 인제스피디움에서 총 8라운드로 개최된다.

현대차는 'TEAM HMC'에 ▲전문 드라이빙 수트 ▲차량 관리를 위한 전속 마케니 팀 ▲경기 출전에 따른 소정의 경비 등을 지원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인의 수입차 사랑 '브레이크가 없다'

4월 신규 등록 2만5500대
전년 동기대비 11.5% 늘어
벤츠 8430대 4개월째 1위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자동차가 10만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2만5578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5% 증가한 것이다.

또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대수는 총 9만7486대로, 지난해에 비해 2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4월 신규등록대수는 3월에 비해 6.3% 줄었는데, 지난해 일부 브랜드의 물량부족으로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가 8430대로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BMW가 6113대로 2위를 기록했고, 이어 아우디(1320대), 볼보(1263대), 폭스바겐(1080대), 미니(1051대), 지프(1001대) 등 순이었다.

4월 베스트셀링 모델 역시 3월에 이어 벤츠의 E 250(1499대)이 차지했다.

여기에 벤츠 E 350 4MATIC(912대), 벤츠 GLE 450 4MATIC(731대)가 뒤를 잇는 등 메르세데스-벤츠가 베스트셀링 모델 3위를 석권했다.

국가별로는 일본 모델이 작년 동월 대비 25.8% 증가한 1584대가 판매되면서 3월에 이어 4월도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유럽 브랜드는 2만831대로 작년 동월 대비 9.5% 늘었다. 미국 브랜드도 3163대로 18.5% 증가했다.

연료별로는 전기차가 510대로 51.3% 증가했고, 하이브리드는 7082대로 3.3배로 증가했다. 가솔린은 1만2537대로 8.6% 감소했고, 디젤은 3638대로 41.8% 감소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쌍용차 '2022 티볼리' 출시

쌍용자동차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2022 티볼리' (사진)를 출시했다.

10일 쌍용차에 따르면 쌍용차는 고객이 선호하는 사양을 중심으로 모델별 트림을 조정하고, 스타일이 개선된 '레드(Red) 스페셜' 모델을 추가했다.

메인 트림인 2022 티볼리 V3 모델에는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전방 주차 보조 경고 등 옵션을 장착할 수 있다.

2022 티볼리 'R-Plus 블랙'과 'R-Plus 화이트' 모델은 V3 모델에 레드 도어가니쉬, 레드 핸들가니쉬 등의 빨간색 포인트를 더해 차별성을 강조했다.

2022 티볼리의 판매가격은 모델별로 1689만원에서 2101만원 사이다. R-Plus 블랙과 화이트 모델은 226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